

' 남편은 미국인, 우리는 천국인 '

용산구 한남빌리지. 얼마전까지 미군 전용 거주지였던 이곳에 구수한 '한국 아줌마'들의 전도와 기도의 꽃이 피어난다.

용산16순, 일곱명의 순원 모두 국제결혼을 했다. 미군인 남편과 한국내 미국 땅같이 낯선 곳에서 순원들과 가족같은 사랑을 나눈다.

국제결혼을 한 순

'국제결혼을 한 순'이 생기게 된 것은 순장 김성열 집사의 노력이 컸다.

김 집사가 처음 온누리교회에 오게된 것은 '98년 초. 워낙 둥글 둥글한 성격 탓에 순예배며, 공동체생활이 즐겁기만 했다. 그러던 중 5백여 세대가 사는 한남빌리지에서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인 학교를 다니는 딸아이 통학을 시키며, 낯선 한국인 엄마가 보이면 '온누리에 가자'고 얘기를 꺼냈다. 또 이웃이 새로 오면 '순예배에 가보자'고 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이 실망스럽게도 냉담했다. "국제결혼을 한 것이 남들과 다른점이기 때문인지, 낯선 사람들의 모임에 선뜻 가려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세제 사들고 전도가요

그래서 국제결혼을 한 순을 만들기로 했다. 강혜경 자매와 단둘이 98년 말 순모임을 시작했다. 순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아파트 게시판에 '온누리교회에 다니는 분 여기로 연락하세요'라는 전단을 붙였다. 그리고 새로 이사온 한국인 가정이 있으면, 세제를 사들고 전도에 나서기도 했다. "순장인 제가 전도에는 제일 꼴찌예요. 우리 순원들, 특히 서총원 자매, 유수정 자매가 제일 열심이죠"라며 순원들 자랑을 한다.

스스로가 너무 소심하고 마음이 여린 게 흠이라며 늘 강하고 담대하게 되길 기도한다는 유수정 자매. 그런 유자매는 전도할 땐 제일 담대해 낯선 이웃을 만날 땐 늘 앞장을 선다. 그래서 한 명 두명 모이게 된 순원이 10명을 넘겨, 작년 여름에는 분순도 했다. 분순한 용산19순은 임건미 자매가 순장으로 섬기며, 금요일 낮 10시 30분에 모인다.

다시 식구가 단출해진 용산16순. "남편의 발령지에 따라 2, 3년 마다 이주하기 때문에 순원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는게 아쉬움"이라는 김 집사. 그러나 이런 특성 때문에 오히려 순원들이 전도에 더 열심을 낸다.

밥그릇 셀 만큼 친밀해

한 아파트단지에 올망졸망 모여사는 용산 16순의 또 다른 자랑은 ‘한 가족 같은 친밀함’이다. 남편들의 직업이 같고, 모두 친정 식구들이 믿지 않는 것 등 공통점이 탓인지, 서로 너무도 잘 알고 이해한다.

‘남의 집 그릇이 맨날 우리집에 와있어요. 니집 내집, 네 아이 우리 아이가 따로 없어요.’

서로 밥그릇까지 셀 정도로 가까운 용산16순. 이렇게 서로를 많이 알기 때문일까? 순예배에서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주신다.

김집사는 작년에 남편이 암에 걸려 큰 충격을 받았었다. 그러나 순원들의 중보로 수술 후 거짓말처럼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늦은 결혼으로 임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서충원 부순장도 순원들의 중보로 아이를 갖게 됐다. 또 최근에 큐티에 불이 붙었다(?)는 서영순 자매. 매일 새벽마다 친정 언니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왔었다. 그런데 몇일전 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꾸 찬송가가 생각난다’고 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에 온 순원이 할렐루야를 외쳤다. ‘국제결혼을 하게 된 것도 친정식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다’는 용산16순 순원들. 요즘도 용산16순 순원들은 서울역 노숙자 전도, 영어예배 모잠비크 아웃리치 참여로 전도에 열정이 끊이지 않는다.

이들의 열정으로 미국땅 같은 한남빌리지가 ‘천국같은 땅’으로 바뀌어가길 기대해본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 출처 : 온누리 신문